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실험적 소재 아까운 씩씩한 결말



## 용두사미 결말 속 개연성 없어

다. 선호(이승준)는 진우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이메일을 보냈지만, 끝내 포기했다. 진우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희주(박신혜)뿐이었다.

세주(EXO 찬열)는 게임 개발자로서 제이원홀딩스에 스카우트됐다. 세주가 회사를 방문한 첫날, 카페에서 세주를 기다리려던 희주의 컵에 유저들의 대화가 들렸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최고 레벨이 25인 게임 속에 총을 쏘는 아이디어 없는 유저가 있다는 것이었다. 50레벨 이상의 유저부터 사용할 수 있는 총, 희주는 본능적으로 진우임을 깨달았다.

세주는 “인턴(인스턴트 단전)이 있을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 적들의 눈을 속이는 건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인턴이었다”라고 말했다. 희주 또한 ‘인턴’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게임에 접속, ‘세상 모두가 안 믿어도 상관없다.’

시작은 참대했으나 끝이 묘연했다. 다양한 추리 요소로 매회 궁금증을 높였지만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쉬움을 남겼다.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극본 송재정, 연출 안길호) 최종회에서 게임 안에서 1년 간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유진우(현빈)와 그와의 재회를

만는 정희주(박신혜)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방송에서 진우는 본인을 비롯해 차형석(박훈), 차교수(김의성), 정훈(민진웅)이 모두 게임 속 ‘버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직접 세 손으로 ‘천국의 열쇠’로 이들을 짚었다.

버그인 세 명의 NPC(Non player Character, 유저에게 퀘스트나 이벤

을 제공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사라지자, 엠마(박신혜)가 나타났다. 진우는 게임에 남은 마지막 버그인 자신의 운명을 엠마의 손에 맡겼다. 모든 오류가 사라지자 게임은 리셋(재시작)됐다.

이후 1년 뒤 상황이 그려졌다. 제이원홀딩스는 리셋 됐던 게임을 다시 개발해 세상에 내놓았고,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

나는 믿는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진우는 게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드라마는 ‘인턴’의 존재와 진우와 희주, 두 주인공의 재회를 암시하며 열린 결말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AR(증강 현실)과 게임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접목해 각광받았다. ‘인현황후의 남자’ ‘나인 W’에 이어진 송작가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은 새로운 기술인 증강 현실로 이어졌다. 비슷한 소재, 기시감에 지친 시청자는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국적인 풍광과 어우러진 이 판타지물에 열광했다.

게임을 현실 세계에 구현한듯한 컴퓨터그래픽(CG)은 시청자를 끌기 충분했다. 여기에 현빈의 화려한 액션이 더해져 마치 실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드라마에서 진우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와 미

스터리는 매회 궁금증을 안겼다. 하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특히 후반 4회분에서는 미처 풀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파편처럼 갈라져 있었고 현실 세계와 판타지는 불과 기름처럼 따로 놓였다. 결국 마지막 회에서 매듭 짓기 위해 주인공의 대사한 줄로 거대한 서사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용두사미 결말 속 개연성은 없었다.

이밖엔 지나친 회상 장면과 PPL의 반복은 시청자의 피로감을 불러일으켰다. 애청자 사이에선 최종회 속 주인공인 현빈이 PPL 제품보다 존재감이 적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왔다. 독창적인 소재의 감정이 무뎠다. 또 다시 제기된 ‘개연성 부족’은 시청자의 추억 속 아쉬움만 남게 됐다.

이날 방송분은 케이블, IPTV, 위성 등을 포함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9.9% 최고 11.2%를 기록하며 케이블, 지면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일 방송분과 비교해 0.9% 상승한 수치를 보이며 종영했다.



## ‘1박 2일’,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

‘1박 2일’이 시청자들의 오감에 힐링을 선사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이하 ‘1박 2일’)은 전국 기준 15.7%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회보다 0.4%p 상승한 수치로, 동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일요일 예능 왕좌 자리를 수성했다.

동시간대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은 MBC ‘복면가왕’은 평균 8.3%(1부: 6.7%, 2부: 9.9%), MBC ‘국민남편’은 5.6%, SBS ‘턴닝’은 평균 6.2%(1부: 5.1%, 2부: 7.3%), SBS ‘집사부일체’는 평균 7.8%(1부: 6.4%, 2부: 9.2%)를 기록했다.

이날 ‘1박 2일’에서는 김준호-차태현-데프콘-김종민-윤동구 정준영이 강원도 일대의 맛과 멋이 담긴 국수를 찾아 떠난 강원도 국수로 드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멤버들은 데프콘-김종민-정준영의 ‘빙면로드’ 팀, 김준호-차태현-윤동구의 ‘온면로드’ 팀으로 나뉘어 냉면 메달국수를 시작으로 원주 초계국수-횡성 건진국수-봉평 장갈국수-정선 컷등치기까지 강원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반백년 전통 맛을 탐할 터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멤버들이 각 국수에 담긴 히스토리와 주변 먹거리-즐거거리를 활용, 여행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미션으로 자신들이 직접 맛본 국수수준하고 맛 평가까지 하는 등 기획-마케팅 모두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 앞에서 진행되는 발표회에서 ‘2019년 황금폐지해 맞이 첫 입수가 걸렸다’는 제작진의 말에 강원도 국수로도 열기가 뜨거워졌다.

그런 가운데 데프콘-김종민-정준영의 ‘빙면로드’ 팀은 봉평 메달국수 원주 초계국수-횡성 건진국수를 방문, 김준호-차태현-윤동구의 ‘온면로드’ 팀은 봉평 장갈국수-정선 컷등치기를 방문했다. 감자 메달 등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국수들의 향연이 멤버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고 건진국수-컷등치기 등 독특한 이름이 멤버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입 찬스를 위한 멤버들의 고군분투가 눈길을 끌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뱃심을 이용한 컷바탕으로 ‘요구르트 릴레이 겨루기’-‘컷등 단어 맞추기’ 등에 도전하며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는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 ‘말모이’ 영어 자막본 특별 상영 확정



공감 어린 웃음과 묵직한 울림, 배우들의 진정성이 선사하는 감동을 위한 영어 자막 상영 서비스 제공한다.

외국인들의 한국 영화 관람과 콘텐츠 주변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말모이’의 영어 자막 상영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상영된다.

먼저, 1월 21일, 22일에는 오후 3시 20분, 오후 8시 30분 총 2번에 걸쳐 상영될 예정이며, 1월 23일~25일은 추후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 토착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다. ‘말’은 문화, 역사,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력이 큰 언어의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반해 소수언어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까지 보급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 속에서 유엔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토착어를 보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자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로 지정한 것.

여기에 1940년대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민족의 정신이 담긴 그릇인 우리말과 글을 지켜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이’의 개봉과 상영 소식은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말모이’는 유혜진, 윤계상, 김흥파, 우현, 김태훈, 김진영, 민진웅 등 연기파 배우들의 빈틈없는 열연으로 완성된 따뜻한 웃음과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이 공히나 불처럼 당연하게 쓰고 있는 우리말과 한글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화를 본 관객들도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의 진정성에 대한 뜨거운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유혜진과 윤계상의 만남, 김흥파, 우현, 김태훈, 김진영, 민진웅 등 연기파 배우들의 호연으로,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을 모아 우리말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 속에 그려낸 영화 ‘말모이’는 1월 9일 개봉해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장도연, ‘도시어부’ NEW 멤버 확정 “3남매 황금 케미”



장도연이 마이크로닷의 후임으로 입담과 몸을 이기지 않는 열정으로

로 ‘도시어부’와 함께 한다.

21일 채널A 측에 따르면 장도연이 ‘도시어부’의 새 MC로 합류한다.

거침없는 폭탄웃음을 선사하는 방송계의 팔방미인 장도연이 이태하, 이경규와 함께 ‘도시어부 3남매’ 황금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다.

장도연은 MC로 합류한 첫 촬영에서부터 애크르기 인사로 등장하며 두 선배의 박수갈채를 받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이태하와는 장도연의 고정 MC소식에 ‘도연아 아무 것도 신경 쓰지마. 다 우리가 할게’라며 장도연에 대한 사랑을 듬뿍 표현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경규는 장도연에게 “MC 규칙사항이 있다”며 장도연의 균기를 바짝 잡아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장도연은 기죽지 않고 “저도 이제 고정이에요니까 저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라며 예능 대부 이경규의 말을 맞받아치며 이경규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전언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일식당을 찾아가 회 뜨는 법까지 배웠다는 ‘열정미녀’ 장도연의 활약상은 2월 중순 채널A ‘도시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 ‘도시어부’와 함께 한다.

21일 채널A 측에 따르면 장도연이 ‘도시어부’의 새 MC로 합류한다.

거침없는 폭탄웃음을 선사하는 방송계의 팔방미인 장도연이 이태하, 이경규와 함께 ‘도시어부 3남매’ 황금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다.

장도연은 MC로 합류한 첫 촬영에서부터 애크르기 인사로 등장하며 두 선배의 박수갈채를 받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이태하와는 장도연의 고정 MC소식에 ‘도연아 아무 것도 신경 쓰지마. 다 우리가 할게’라며 장도연에 대한 사랑을 듬뿍 표현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음력 12월 17일)



▶**띠별** 혼자서 동분서주 바쁜 날 되겠다. 기, 오, 임신씨는 자존심을 버리고 호의를 받으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묵묵히 해낼 때 협조자가 나타날 수 있다. 3, 9, 10월생은 남에게 준 금전 받기가 힘들어도 보채지 말라. 기다리면 기쁜 날 오겠다.

▶**띠별**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희망이 보이는 날이다.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고 가족의 화합이 필요하다. L, M, K 성씨는 다른 사람 유희를 과감히 뿌리쳐라. 1, 7, 9월생은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실망 또한 크다는 이치를 알라.

▶**띠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N, Z, H 성씨는 서둘러 말고 차분하게 처신하는 것이 오늘의 화를 면하는 길이다. 신혼 초부터 서로 자존심때문에 무언 속어 있는 것은 손해다. 1, 3, 11월생은 사업에 운이 서서히 열리겠다.

▶**띠별**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책이다. 여건이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처신해야 할 때다. 3, 5, 7월생은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매사조심. 주황색이 길색.



▶**띠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나 지연되는 격. S, Z, H 성씨는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도 좋다. 하지만 가족이 만류하면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1, 7, 11월생은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불행임을 알라.

▶**띠별** 할 일은 많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힘들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때. 2, 5, 11월생은 무엇을 하든 부동산을 팔아서 한다면 손해가 뒤따를 수. 신급한 판단은 금물. M, K, H 성씨는 남, 서쪽에서 길을 찾으라.

▶**띠별** 해가 지기 전 남, 서쪽 사람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높다. G, O, Z 성씨는 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 바라지 말라. 먼저 찾아가 대화하면 평안이 올 것이다. 3, 7, 9월생은 붉은색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니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라.

▶**띠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 처음부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조건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말라. 3, 5, 9월생의 길은 뜻은 차차로 전달될 것이다. 힘든 단상을 서, 북쪽 사람이 도와줄 듯.



▶**띠별** 독수리는 높이 날수록 자기 뜻을 관철하듯,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뜻을 성취시켜야 하지 않을까. 자신을 발견할 때다. B, S, O, K 성씨는 투자를 삼가고,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3, 5, 10월생은 언행 조심.

▶**띠별** 약속은 항상 중요한 것이다. L, Z, H 성씨는 금년 약속은 꼭 실행하라. 진심한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다 보면 큰 것은 저절로 오게 된다. 3, 9, 11월생에게 약속한 것이 장래에 힘이 되겠다. 북쪽 사람은 경계심이 좋을 듯.

▶**띠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안타까운뿐이구나. 1, 2, 5, 12월생은 금전 관계로 타인으로부터 구설이 뒤따를 수. 인내로서 극복함이 최우선임을 알라. G, O, K 성씨는 지나친 신경으로 건강이 염려된다. 마음을 밝게 가질 것.

▶**띠별** 자녀들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라. 자녀들의 부탁은 다 들어주다 보면 탈선할까 염려된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 2, 4, 7, 10월생은 가정의 건강은 곧 사업과 연결됨을 알라. 범, 말, 양의 지나친 신경은 어리석은 행동이다.